

디자인계열 기초교과목 연구 및 제안

A Study of Foundation Courses in College of Art & Design

서주환

윤민희

경희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Suh, JooHwan

Yun, Min-Hie

Dept. of Art & Design, KHU

• Key words: Deign education, Foundation Courses, Drawing, 2D/3D Design, History of Art & Design, Analyse of form

1. 서론

1-1. 연구목적 및 방법

디자인대학의 기초교육과정(Foundation Courses)은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와 체계적인 디자인 훈련을 배양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서양의 선진디자인 학교에서는 담당교수의 체계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기초조형교육이 행해지고 있다면, 한국의 디자인대학에서는 이러한 연구 및 교육체제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국내외의 디자인대학 및 학과의 기초교과과정에 대한 연구 및 분석을 바탕으로 새로운 디자인 교육과정을 위한 제안 및 교과목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외국의 디자인학교 및 디자인 대학(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교육과정과 국내외의 디자인 관련학과 및 대학의 교육과정을 상호 연구 및 비교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위하여 국내대학의 사례는 서울 및 서울 근교의 4년제 디자인대학의 디자인학부 또는 디자인관련학과(시각디자인, 제품디자인)를 중심으로 교과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해외의 디자인학교 및 예술디자인대학은 미국의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교과과정을 연구, 분석하였다. 특히 외국의 사례연구는 프랫 인스티튜트(Pratt Institute), 파슨스디자인학교(Parsons school of design) 오티스에술디자인대학(Otis College of Art & Design), Central Saint Martins의 예술디자인대학(영국) 일본의 동계예술대학, 무사시노미술대학(武蔵野美術大學), 교토시립예술대학, 프랑스의 파리국립장식미술학교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2. 연구내용 및 범위

- 국내연구 : 서울/경기권 디자인관련학과(시각, 제품디자인학과)의 기초교육과정 연구, 분석(12개 대학)
- 국외연구 : 미국(3), 영국(1), 프랑스(1), 일본 디자인학교(3) 기초교육과정 연구, 분석(8개 대학)
- 국내외 디자인교육과정 비교 및 분석
- 창의적인 기초교육과정을 위한 교과목 제안 및 교육제도 제안

2. 국내외 디자인대학의 기초교육과정 사례

대학의 예술교육은 크게 전문인을 위한 예술교육과 교양을 위한 예술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 교양교육이 <예술을 통한 교육 : Education through Art>, 즉 전인교육에 목적을 두고 있다면, 전문교육은 <예술을 위한 교육 : Education for Art>에 바탕을 둔 전문인 양성에 그 교육목적이 있다.¹⁾ 일반적으로

본격적인 전공 심화과정 전에 전공 탐색을 위한 1학년의 예술교육과정(1년)을 흔히 기초교육과정이라 칭한다. 일반적으로 기초교육과정은 교양과목 및 예술교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많은 국내외 대학들이 이와 유사한 교육과정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기초교과목은 실기과목과 이론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기과목은 드로잉(관찰과 표현), 컴퓨터드로잉, 평면디자인(평면조형), 입체디자인(입체조형)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론과목은 조형예술의 이해, 미술사(서양미술사, 동양미술사), 디자인사(디자인원론) 등이 개설되어 있다. 교과목의 명칭은 전공의 특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거의 대부분 유사한 교과목으로 개설되어 있다.

[표 1] 가장 일반적인 기초교육과정

실기교과목	이론교과목	교양과목(이론)
드로잉		
컴퓨터 드로잉	조형예술의 이해	미술의 이해
평면디자인(2D Design)	디자인사(원론)	디자인의 이해
입체디자인(3D Design, 입체조형, 재료와 표현)	미술사	생활과 디자인
색채학(이론+실기)	(동, 서양미술사)	사고와 표현
		(국어, 글쓰기)

2-1. 실기과목

국내외 거의 대부분의 기초교육과정으로 드로잉, 평면디자인 3D Design(입체표현, 입체조형), 색채학(이론과 실기병행)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이러한 교과목은 소규모 아틀리에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색채학은 대학에 따라 3타입의 교과목(실기 및 이론, 실기과목, 이론과목)으로 행해지고 있다.

2-2. 이론과목

국내외 많은 대학들의 이론과목은 기초교육과정(1년)동안 2개 정도가 개설되어 있다. 유럽이나 서양의 대학이 거의 대부분 미술사를 2과목 개설하였다면, 한국의 과반수의 대학은 디자인 이론과목과 미술사과목을 각 각 1과목씩 개설하고 있는 추세이다. 반면 12개 대학 중 4개 대학은 디자인 기초이론과목은 개설되어 있는 반면 미술사 교과목은 기초교육과정으로 개설되어 있지 않았다. 특히 일본 디자인대학에서 디자인 관련 이론과목은 2과목이 개설되었지만, 미술사과목은 개설되지 않고 있다.

2-3. 디자인학과 이론교과목

미술사 교과목이 기초교육과정적으로 개설되지 않은 대학에서는

1)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예술교육>>, 문화예술총서, 1988, p. 11.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양 선택으로 미술사관련 교과목을 개설하였다. 이러한 교과목은 미술사(동양, 서양미술사, 한국 미술사, 현대미술사) 또는 현대예술(미술)의 이해 등의 과목으로 개설되어 있다. 이러한 과목은 모두 교양의 범주에서 이론 수업이 행해지고 있다.

3. 국내 기초교육과정에 대한 비평 및 제의

3-1. 제학제, 다학제에 바탕을 둔 실기교육

기초실기 교육과정으로 개설된 드로잉, 2D Design(평면디자인, 기초디자인), 3D Design 교육은 회화전공, 시각디자인전공, 산업디자인 또는 공예전공의 교수들에 의해 교육되어 왔다. 국내에서는 2D Design은 가장 기초교과목으로 시각디자인전공 선생님들에 의해 강의 및 집필이 행해지고 있다면, 서양에서는 포괄적, 체계적 사고를 가진 화가나 이론가에 의해 집필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즉 다양한 학제적 연구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또한 3D Design도 위와 같은 맥락에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평면디자인의 경우 서양위주의 조형의 요소 및 원리 중심이라면, 동서양 미술 현상에 바탕을 둔 기초디자인 교과 과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입체표현은 모든 예술디자인대학(회화, 조소, 공예, 디자인)에 개설된 과목이다. 예를 들면 조소의 입체교육이 재료의 사용 및 공간의 구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면, 회화의 영역에서는 2차원에서 3차원으로 표현 공간의 확장, 설치의 측면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공예의 영역이 재료의 특성에 따른 수작업의 중요성 등을 강조한다면, 산업디자인의 영역에서는 용도에 바탕을 둔 제품을 만드는 하나의 과정으로써 체계적인 입체조형교육이 중요할 것이다. 그러므로 다양한 전공영역의 전공자들에 의해 제학제적, 다학제적 연구가 선행된 교과목개발은 보다 창의적인 기초교육과정이 될 것이다.

3-2. 제학제, 다학제에 바탕을 둔 이론교육

기초교육과정에서 관련이론과목은 서양미술사, 디자인사, 공예사, 예술의 이해, 조형예술의 이해 등 각각의 영역이 분리되어 교육되고 있다. 또한 거의 대부분의 이론과목은 수강인원을 극대화(70-150명, 또는 300명)하여 학생들의 참여를 회피하는 <전공이론교과목의 교양화?>를 행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디자인이론과 미술사를 아우르는 쉽고 포괄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교과목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미국과 영국대학 교과목 중의 하나인 Perspectives in World Art & Design^{1,2}(Parsons), Survey of Art1, 2(Pratt), History of Art & Design(영국)는 매우 이상적인 이론 교과목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국내대학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Understanding in Contemporary Art & Design(현대조형예술의 이해)이라는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다.²⁾ 특히 대학 기초교육과정으로써의 이론교육은 어느 한 특정부문에 대한 개별적인 이해가 아니라 포괄적인 예술 디자인 영역의 이해에 바탕을 둔 교과목 개설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각각의 영역

을 체계적으로 살펴보면 하나의 통시성과 공시성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띠고 있다.

3-3. 이론과 실기의 조화에 바탕을 둔 교육

기초교육과정의 이론교육은 이론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실기교육과의 연관성 속에서 행해지는 체계적인 이론교육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색채학과 같은 교과목은 이론과 실기의 조화에 바탕을 둔 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과목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교육을 위하여 실기교수와 이론교수의 공동 연구에 바탕을 둔 수업 및 교재개발이 필요하다.

3-4. 디자인계열별 글쓰기 교육 강화

대부분의 대학에는 국어(글쓰기, 말과 글, 사고 및 표현)교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그러나 전체 대학생을 위한 천편일률적 국어 교육보다는 디자인계열 학생에 가장 필요한 논리적 글쓰기 교육이 요구된다. 특히 현대디자인에서는 시각적인 이미지를 언어로써 설명하고 글로써 서술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디자이너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논리적, 체계적으로 발표, 레포트, 소논문 등을 형식에 맞추어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디자인계열 글쓰기 교육이 필요하다.

3-5. 전문 담당교수에 의한 기초교육

서양의 많은 대학이나 디자인학교에는 기초교육과정을 전문적으로 강의하는 전임교수(실기 및 이론)가 있다면, 아직까지 한 국내대학에는 소수의 대학을 제외하면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또한 기초과목의 거의 대부분을 가장 유동적인 강사선생님들이 담당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디자인대학의 기초교육과정은 학생들에게 무한한 상상력과 창의적 사고를 가져다준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경륜 있는 교수를 중심으로 기초교육과정이 행해져야 할 것이다.

4. 결론

제학제, 다학제적 연구에 바탕을 둔 예술디자인교육, 이론과 실기의 조화에 바탕을 둔 교육, 디자인계열별 글쓰기 교육 강화, 전문 담당교수에 의한 기초교육 등에 의하여 보다 체계적, 창의적인 디자인교육이 행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포괄적, 총체적인 기초교육과정을 통해서 사회 문화 현상, 역사, 그리고 과학기술 등을 다각적인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 세부적이고 단편적인 디자인 이해의 수준이 아니라 인간 삶의 총체적인 현상 속에서 디자인을 이해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한국의 현실에 맞는 국내 대학의 디자인 교육과정 제시

- 주체성을 가진 디자인 교육 및 철학의 부재
- 대학별 특성화된 디자인 교육의 필요성
- 실기 및 이론교과목의 교수 대 학생비율 낮춤
- 기초교육과정의 부실
- 기초교과과정과 전공의 유기적인 연계성에 바탕을 둔 교과
- 과정 운영
- 타 대학과의 연계성을 가진 교환 프로그램

2) 조형예술의 이해, 조형론 등의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대학에서 미술사 중심의 교육을 행하고 있다.